

화순군, 나의 스토리 담은 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

지난 6일부터 총 6회에 걸쳐 교육 12농가 전원 수료 “상품가치 상승·소득증진에 도움 될 수 있길 바라”

화순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교육’ 수료식 및 품평회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내가 디자인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농식품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시우디자인센터 노시우대표의 컨설팅으로 진행하여 교육생 12농가 모두 교육을 수료했다.

품평회는 농가들이 제작한 브랜드 디자인을 설명하고 개별 스토리와 교육소감 등을 발표하여 교육생 간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00 교육생(농주면)은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브랜드를 갖게 되어 기쁘고, 기존제품 디자인을 개선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매출향상이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홍보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가공제품들이 포장 디자인 개발로 상품가치 상승과 소득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소원은 싼고 액운은 날리고” 구례군, 풍등 날리기 실시

구례군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최근 사전 체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체험인 풍등 날리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관 광장 위에서 각자의 소원을 정성스럽게 적은 풍등을 띄워 보내며 새해의 소원을 기원하고 액운은 멀리 날려 보냈다.

행사 참여자들은 물론 일반 방문객들까지 풍등이 만드는 알록달록 다채로운 장관에 감탄을 터뜨렸다.

풍등 날리기 외에도 ▶부럼(땅콩, 호두) 깨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기 ▶카프라 불꽃을 활용한 요술상자 만들기 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아이들은 전통문화를 배우며 가족과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매월 특색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리산역사문화관이 재미와 역사가 함께하는 계속 방문하고 싶은 곳”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동물복지 실현’ 나주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마리당 3만원,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지원

나주시가 반려동물 유기·유실 최소화를 위한 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올해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1마리당 최대 3만원,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량은 총 600마리로 지난 해 320마리

에서 약 2배 증가했다.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 시민으로 빗가람동 소재 지정 동물병원(가람동물병원·채움동물병원·벤치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 시술 시 지원한다.

기존 외장형 장치 부착 반려견도 내장형으

로 변경할 시 지원 가능하다.

시는 관내 동물병원 3곳을 지정, 지원 절차 간소화 등 협업을 통해 반려인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다. 등록 대상 동물인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미등록 시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나주시 관내 등록 반려동물 수는 총 5062마리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장착을 통한 동물

등록비용은 평균 4만원이 소요된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인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 등록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유기·유실 반려동물 발생 및 입양동물 반환율 감소 등 반려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해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설탕 안 찍어도 맛있다!” 장성군 분향 찰토마토 출하

토마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맛으로는 첫손에 꼽는다는 ‘장성 분향 찰토마토’가 출하를 알렸다.

장성군 남면 분향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분향 찰토마토는 어린아이 주먹만 한 크기에 연한 빛깔을 지녔다. 껍질은 무른 감 없이 고르게 단단하다.

한 입 베어 물면 분향 찰토마토가 왜 다른 품종보다 2-3배 비싸게 거래되는지 알 수 있다. 껍질 안쪽에선 달콤한 과즙이 툭 터지고, 속에서는 상큼하면서도 간간한 맛이 기분 좋게 퍼진다. 껍질이 단단하다 보니 식감이 상당히 좋다.

맛의 비결은 특화된 재배 방식과 경관리 그리고 자연에 있다. 최소한의 수분만 작물에 공급하는 건조농법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5년 이상 축적해 온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토마토를 빚어낸다. 여기에, 불태산 맑은 바람과 남면의 비옥한 땅이 건강함을 더한다.

남면과 광주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2월 하순에 생산되는 분향 찰토마토가 가장 맛이 좋다. 가격대는 2kg 기준 8000원에서 1만 6000원 사이다.

장성=김수권기자



담양군, 사무관 승진자에 죽간으로 만든 이색 임용장 수여

담양군은 24일 5급 사무관 승진자에게 죽간(竹簡)으로 만든 이색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사무관 승진자가 받은 임용장은 담양의 상징인 대나무 조각을 엮은 뒤 글자를 각인하여 만든 임용장이다.

이병노 군수는 “항상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굳게 뻗은 대나무처럼 청렴하고 감동하게 군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임용장 수여를 시작으로 사무관 이상 승진자에게 죽간으로 만든 임용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주도 복지사업 첫발

주민주도마을복지사업 심의 회의 개최

곡성군 곡성읍에서 지난 22일 곡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곡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기구다.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며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2023년 주민주도 마을복지사업’ 추진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토론의 장을 펼쳤다. 첫째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한 이미용서비스 제공사업, 둘째는 독거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 가기, 셋째는 외식 기회가 많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 가정 에 외식쿠폰 제공사업을 확정했다.

곡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2년 곡성군 주민주도마을복지계획 성과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시상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시상금 2



백만 원과 민간위원장의 후원금을 합친 금액인 총 510만 원으로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게 30만 원씩 19가구에 주유권을 전달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유류료 후원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접 주유권을 전달하여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더 큰 기쁨을 느꼈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여러 이웃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 모든 읍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2023년 마을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	